



그들의 나눈 내가 아니다.



2012

AM
LH
71
AM
2
UH
8
E1

A N T I

[illegible]

1005

A

14

1450

7

리 알

$$\frac{v}{2} \equiv 1 \pmod{2} \quad \frac{v}{2} \equiv 2 \pmod{2} \quad \frac{v}{2} \equiv 3 \pmod{2} \quad \frac{v}{2} \equiv 4 \pmod{2} \quad \frac{v}{2} \equiv 5 \pmod{2} \quad \frac{v}{2} \equiv 6 \pmod{2} \quad \frac{v}{2} \equiv 7 \pmod{2} \quad \frac{v}{2} \equiv 8 \pmod{2} \quad \frac{v}{2} \equiv 9 \pmod{2} \quad \frac{v}{2} \equiv 10 \pmod{2}$$

안티 함 걸어볼까나

- 2 성이란 무엇일까요?
- 3 순결과 처녀막
- 4 탐폰
- 5 性慾? 性欲
- 6 포르노 그래피 다시 보기
- 7 여성 출연... '학'도 '피'무지, '뽕'을 '꽃'인가
- 9 홍석전 커밍아웃을 통해 바라본 동성애에 대한 단상

[시체지나가는 생각]

II 월경

- 13 우리 속에 들어있는 편견들 I
-Fat is beautiful!

피임방법

- 15 아름다운 관계 맺기를 위하여
- 16 콘돔
- 18 피임약
- 19 먹는 피임약
- 20 우리 이거 한번 해봐오...

폭력은 섹스가 아니야

- 23 내 몸의 주인은 '나'
- 24 흉미 없는 상처
- 29 성폭력 사후 대처 방안
- II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 여성들의 약속



[독아나의 이야기 1]

Cyber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33

[독아나의 이야기 2]

뭐? 얼마 적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구?? 36
-스토일 어떻게 떠날 것인가?

[시여가는 미당] 39

獨立? 獨立? - 나는 독립할거다!

스타카토

[별책부록 I] 숭어학생회에 노면 뭉가 특별한 이유? 42

[별책부록 II] 여학생 휴게실 '쉼터' 한번 가볼까요 43

17대 숭어학생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44

'성문화 지킴이'가 대체 뭔지? 46

여학생들과 함께.... 47

- MUST, 해무리

[새내기를 위한 작은 이야기들] 49

[우리 속에 들어있는 편견들 II] 52

재미있는 성

신나는 날말말추기 53

詩 END

● 날말말추기, OX 퀴즈 응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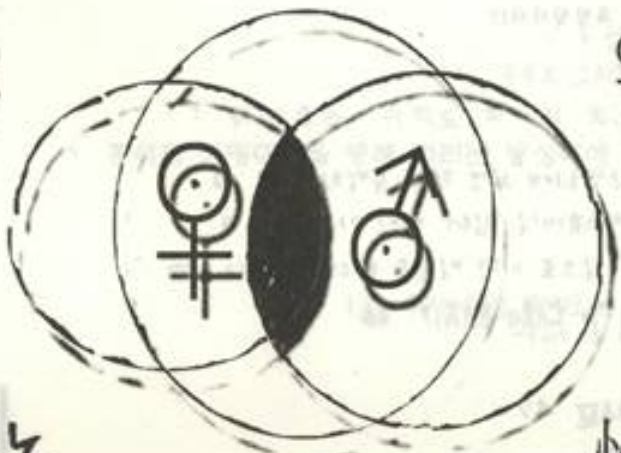


동성애
동성애

안티 람 걸어보까나.....

남 배

○○○○
○○○○



♀♂

性慾

프르노
프르노



순결



우리는 흔히 성(性)이라고 하면 이성간의 성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크게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지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네 몸
에 관한 얘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
성
이
란
무
엇
일
까
요
?
♀

섹스(sex)의 원래의 뜻은 회랍어인 seco(to cut)에서 유래된 말이며, 태어나면서 가지는 신체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한 남녀 구분을 말합니다.

젠더(gender)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문화적인 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성'이라고도 하며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므로 남녀간의 태도, 말씨, 행동 방식, 성 역할 등이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아직 무엇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조금씩 '성'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함께 혹 '나는 내 몸(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감히 비판.. ANTI도 걸어 볼 수 있는 주체적인 '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

그들의 나를 내가 아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치너막이 곧 치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육체적 순결이 사랑의 정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치너막에 대한 환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치너막 재생수술이 여전히 성형하느니 말이다.

치너막이란 질 입구를 동그랗게 싸고 있는 유연하고 탄력있는 결계조직의 막이다. 파열되면 출혈을 하지만 반드시 첫 성관계에 의해서만 파열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두꺼운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얇은 사람도 있어 성관계를 해도 출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 자연분만까지 했는데도 치너막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애초 치너막이 없는 여성도 있다.

치너막이라는 말 자체도 과학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즉 여성에게 바른 몸가짐과 순결한 몸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몸조심'과 '자기관리'를 미덕으로 내세운 것이다. 나아가 순결에 대한 강조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순결이란 누구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성에게 감지되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가 낳은 사슬에 불과하다.

진정한 순결은 치너막을 갖고 있느냐, 동정을 갖고 있느냐 혹은 치너막을 손상시킬 만한 관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성적 자기 결정권)를 가지고 '나의 성'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 탐폰

질 입구에 삽입하는 작은 솜 풍치형의 생리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치너막 파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탐폰 사용이 대중적이지 못하나, 이미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탐폰도 생리대와 마찬가지로 월경혈을 흡수해 피가 밖으로 새 나가는 걸 막아 준다.

새끼손가락만 한 크기니까 무엇보다도 눈에 띄지 않고 활동하기 편하다. 탐폰을 질에 삽입하는 데는 대체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처음인 경우에는 치너막에 부딪혀 가벼운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1. 탐폰의 손잡이를 엄지와 중지로 가볍게 잡아 주세요.



2. 다른 한손으로 질구를 살짝 벌려 주십시오. 벌려진 질구에 탐폰의 둥근 끝부분을 대어 주세요.



3. 탐폰의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몸에 닿을 때까지 허리 일부분을 향하여 천천히 밀어주세요. 좀더 쉽게 삽입하기 위해 탐폰의 위치를 약간씩 조절해 주세요.



4. 검지손가락으로 내뿜을 외뿔속으로 천천히 끝까지 밀어 주세요.



5. 탐폰을 제거해 넣어 휴지통에 버려 주세요. 제거용 끈이 몸 밖으로 나와있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올바르게 삽입된 겁니다. 만약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탐폰이 충분히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예요.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탐폰을 꺼내고 새로운 탐폰을 다시 착용하기 바랍니다.





이미 어엿 다 나고 장성해서 짝꿍 앞도
사실대 중반의 여성들이 흔히 하는 말 거운데,

"나는 차라리 성과 관련된 부분은 모르는게 나야. 알면 골치 아프
다잖니. 그냥 모르고 사는게 나야"

이미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갖고 남은 결혼생활 20여년 된 분의
'모르는게 낫다'는 말에는 의아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성욕이 뭔지
모르고 성욕이 있어도 그녀가 주체가 되어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그것이 주는 즐거움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성욕은 남성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강한 본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여성에게는 밝히는 여자, 해본 여자 등의 수동적인
여성상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문갑하고 있다.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좋은 여자로 인식되는 우리 사회
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성욕을 말한다 것은 '쉬운 여자' '내지는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여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의 성욕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서 이야기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참도록 강요되어 왔다.

여성의 성욕도 남성 못지 않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건 과학
적 연구로도 속속 증명되고 있다.

만약 과거 여성들에게 성욕억제를 강요하거나 참도록 교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과 욕망대로 행동하게 했다면 현재 이 사회
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 진다. ○○○○○○○○○

性慾·性欲

1) 慾 욕, 욕망
2) 欲 욕2차이다.
비밀2 원하다

포르노 그래픽 다시 보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마우스 클릭 몇번이면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사리 보게 된다. 남자라면 한 번쯤 통과시켜처럼 포르노를
보곤한다.

어느새 포르노그래피는 일상이 되어버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포르노그래피란 무엇일까.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Pornē*(매춘부)와 *Graphos*(글
쓰기)의 합성어이다. 즉, 매춘부에 관해서 쓰기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매춘부'가 '포르노 여배우'로, '글쓰기'가 '카메라로 찍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포르노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까지 포르노
는 묘사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로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
키도록 만들어져 왔다.

포르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포르노가 지나치게 성행위에 집
중하고, 성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는 인
간의 성적인 관계를 단지 성교에만 국한시킬 뿐 아니라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 낸다. 이를테면 남성의 성기가 커야 여성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대부분의 포르노에서 남성이 여성
을 학대하는 모습을 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여성은 마치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무시무시한 말인데도, 우리는
이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아닐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포
르노를 통해서 성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포르노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하
지만 지금의 포르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의 모습은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요소가 다분하다. 따라서 그저 포르노를 보고 즐길 것이 아니
라, 그 안에 깔려 있는 우리 사회 성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는 않을까..... ○○○○○○○○○○



여성 흡연!!

‘아직도’ 피우지 못할 뿐인가!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91년 2.4% → 97년 8.1%로 약 3배 증가)고 한다. 하지만 길에서 혹은 금연 건물의 흡연실에서 우리는 담배 피우는 여성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사실 남자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십시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에 비하여, 우리는 공공연히 담배 피우는 여자를 보는 것은 낯설다.

그것은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흡연을 금기하는 사회 풍토 때문일 것이다.

물론 특별한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부의 흡연은 태아에 좋을 리 없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임신부에 한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임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신할 생각이 없는 여성에게까지)에게 흡연을 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게다가 흡연 여성이 난자에 미치는 영향보다 흡연 남성이 정자에 미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학적인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여성에게만 유독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흡연은 여성에게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몸(건강)은 사회적으로 아이를 담을 그릇으로만 인식이 되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여성 흡연을 반대하지 않는 남성)일지라도 자신의 배우자나 여자 친구의 흡연에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막상 자신의 문제로 부딪힐 경우에는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실상 담배는 이제까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에 흔한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정숙할 여자와 섹시한 여자 - 내 아내는 정숙해야 하지만, 거리에 약한 옷차림의 여자는 나(남성)의 눈요기 값이 되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면 상관없다)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추세(WHO에서 금연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함)와 달리 여성 흡연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왜일까. 단순한 시대 역행인 것이라고 치부할 문제인가. 아니면, 음지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야 했던 여성 흡연자들의 점차 양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가.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유로 담배를 끊으라고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담배를 피울지 말지를 결정할 개개인의 선택권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같이 담배 피우자--!! 보 둘 때는 건 아니겠소? ^^;;

고쳐 나는 누구에게나 담배가 온전한 “기호식품”이기를 바란다.





홍석천 커밍아웃을 통해 바라본 동성애에 대한 단상

일간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홍석천 커밍아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외선 타이틀 알려지고 나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석천의 방송 출연 정지 문제이다. 순간 나는 필라델피아(폴 헝크스 주연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어 법정 싸움을 한 영화임)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과연 동성애자는 과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악인 이성한 '괴물' 혹은 '변태' 인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닐 때와는 달리 자신의 주변·친구·가족·에 혹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너무나도 이성간의 사랑에만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이성애 중심의 문화(TV 매체 등)나 제도(결혼, 가족)는 거스르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자외선 타이틀 이성애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동성애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과연 동성애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일까.

동성애
동성애



동성애를 비정상 또는 변태 성욕자 쪽으로 취급하는 저변에 깔린 생각은 동성애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라면 남자와 여자의 성애는 "번식(생식)"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무섭게" 만드는 설득적인(?) 주장 중의 하나는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사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에이즈는 고정된 파트너와 관계를 갖는 사람보다는 파트너를 자주 바꾸게 됨으로써 감염되기 쉽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그가 여자인지 때문에, 혹은 그가 남자인지 때문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까.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외쳐야 하는가.

홍석천의 커밍아웃에 대해 어떤 이는 변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 굳이 왜 커밍아웃을 하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홍석천 개인에게 커밍아웃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긍정하고 자신에게 솔직해 지고 당당해 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커밍아웃
(Coming Out)이란?

자신이 동성애자(혹은 양성애자)임을 알리는 행위와 알리고 과정을 뜻하는 용어인 개념이다. 자기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다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 다른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행위 그리고 가족과 친지, 나아가 사회에 자신의 성적정성을 알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어원은 "옷장 속에서 나온다(coming out of closet)"는 표현이 동성애적 맥락으로 특화된면서 축약된 표현이다.



월경.....

by 셴(한글과 97)



I. 아침에 눈을 떴다 어젯밤 마신 술이 아직 덜 됐는지 속이 거북하다 이런 너무 많이 잠을 잤다 허리가 불편하게 아파온다 짜기... 그 때도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고 나는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며 눈을 뜬다 습관처럼 화장실을 간다 이런, 선명한 빨간 핏자국을 발견하면 나는 하등했다 그제야 허리의 고통을 이해하며 짜증이 난다

II. 달이 차 오르면 늦은 귀가길에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이제 내 몸이 더욱 불인해짐을 느낄 수 있다 달이 차 오르면 나의 몸도 변화를 겪는다 집으로 와서 차분히 주변을 정리하고 침대를 하고 앉는다 인공빛은 나에게로의 침침을 막는 존재이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조용히 나에게로 침침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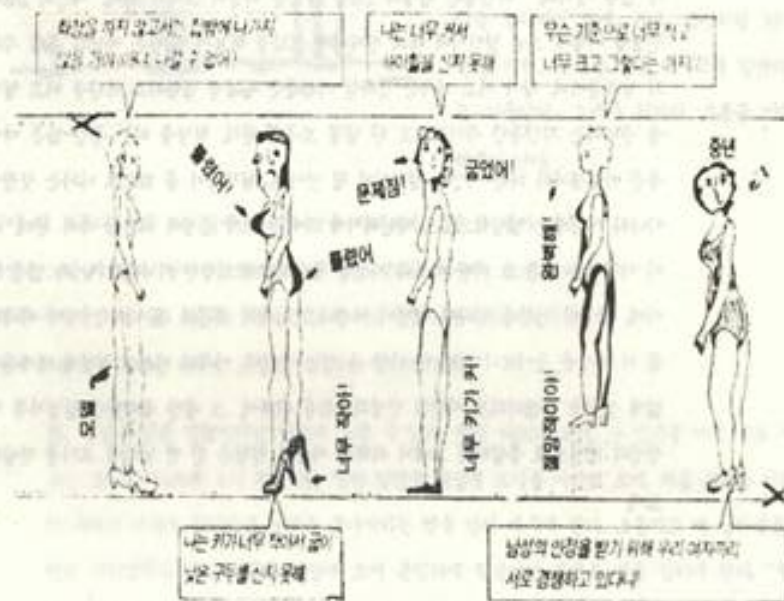
III. 월경은 같은 경험이지만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월경 다르게 보기 그 연습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것이다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일단 월경을 낯설게 보기를 시작해 보자 처음 초경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달연하게 월경을 즐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때 남학생을 때때 하고 여학생끼리 양호실 혹은 강당에 모여 은밀하게 월경이란 존재를 처음 접하게 된다 "월경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하게 행동하여야겠지요" 아무렇지 않았던 남학생들과 처음으로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에게 비밀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생리대 광고들은 깨끗함을 강조하기에 비뚤다 왜냐면 월경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핏이나 월경혈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이면 엉겁없이 찰싹지 못한 사람으로 찍히게 된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을 가지고 있을 법한 검은 봉지 인의 생리대 혹시 아저씨가 있을 경우에는 얼굴을 붉히며 새빨간 자리를 뜬 경험도 있을 것이다

IV. 하지만 월경을 낯설게 보자 이때까지의 이런 경험들을 모두 머리 속에서 지우고 오직 자신이 어떻게 월경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이 어떤 월경전증후군을 겪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신이 월경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느끼는지를 낯설게 보는 것이다

V. 만약 그러할 수 있다면 월경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월경기를 좀 더 용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평생의 1/8을 월경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 자신의 1/8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월경은 여성의 몸의 주기의 일부분이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여성들은 월경을 경험하고 배란을 하고 월경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한 달을 보내게 된다 월경을 하는 동안 많은 여성들은 비월경기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월경혈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게 되며 사고의 중심에 자신을 두게 된다 즉 이 기간에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자신을 돌아보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밤상의 전환을 한다면 월경이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월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1/8을 위해서, 그 동안 불편했던 월경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증식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월경은 한 번 낯설게 보기를 연습해 보자

VI. 월경은 더러운 것이냐 아이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그 존재 자체로서 여성의 경험이며 일상이다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몸을 돌아다보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를 고민해 보자 사회의 월경에 대한 고정관념에 안락을 걸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담당하게 할까? 

Fat is beautiful!



내 몸인데

왜

남에 의해 평가받는 거야...

싫어 - 정말 싫어 -



To.

두 사람이 같이 자느냐 마느냐는 두 사람의 욕구에 달려 있겠지
도 욕구를 느끼더라도 반드시 같이 자야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같이 자고 싶을 때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어.

바로 피임이야.

이론적으로만 보면 여자는 30~40년 동안 임신할 수가 있어.

게다가 매달 임신을 할 수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피임을 해야해.

그런데 흔히 피임은 여자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해.

불공평하지 않아?

혼자하는 게 아니니까....

2001. 2. 26 어느날.....

STACCATO



아름다운 관계맺기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이성적이고 여평 아남적이며은지(?) 모로 고음에서 벗어나 자은

를 느리고 실은 우리가 대항에서 가장 하고 실은 것은 무엇일까?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많은 욕구들....

그 중에서 대부분 미팅, 소개팅 더 나아가 '연애' 라는 또 다른 인간관계에

정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원지 한변들은 꼭 해해야 할 것 같은....

사랑... 스킨십... 키스..... 섹스까지....

이런 단어들은 이성적인 수 없는 등에서 함께 해와 가능한 모습들이다...

등에서 함께... 즉 관계, relation 를 뜻한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한다는 이름로 때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성관계로 연결이 된다.

하지만 성관계는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남자에게 성관계가 삽입-사정으로 끝나는 과정인지 모

르지만, 여성에게 성관계란 성고편만 아니라 임신, 출산과 연결이 되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피임'? 하면 떠오르는 많은 할까?

사랑로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우리는 여평 아직도 한한 원생의 느낌보다 여드 청정한 양 수 얻는 것은 생의

느낌이 더 강하지 않은지...

피임은 땅 그대로 임신을 피하는 행위다.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성관계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 것. '성관

계' 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아껴주고 보호하려는 배려와 책임감을 전제로 이

루어져야 하므로, 피임은 성관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다...

아직 피임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모르나, 우리의 몸이 대항 진정한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한변들은 고민해

보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condom

콘돔은 아주 얇고(0.03-0.06mm) 부드러운 고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엄청

나게 놓아날 수 있어. 그래서 관계를 할 때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야. 콘돔은 방대한 페니스

에 직접 정자를 채로하기 때문에 정자가 질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게 만들지.

남자 중에는 콘돔 사용시 성적 쾌감이 떨어진다거나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콘

돔 사용을 꺼리는 불지갑하고 무책임한 남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니?

성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되고 피임은 상대방에게 자유롭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 어떻게 사용하는가?

포장지를 가위로 뜯으면 안돼. 콘돔을 손톱으로 잡아도 상관 없지만 손톱에 긁히지 않도록 포

스트와 흐로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럼 정자가 도망가버리게

돼. 우선 콘돔의 끝을 눌러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밀어내야 흐로 그래야 정자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런 다음 방기한 페니스의 포머를 찾아 콘돔을 둘러면서 끝까지 페니스 위로 올

려. 잘못해서 풀렸다고? 그럼 반드시 새 것으로 갈아야 흐로

사정을 하고 나면 페니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콘돔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해방 때

는 콘돔을 꼭 잡아야 흐로 콘돔은 페니스를 질에 삽입하기 전에 사용해야 흐로

'잠깐만이라도 너의 상황을 느껴보고 싶어'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돼. 사정을 하기 전에

흘러나오는 정자가 있거든. 정자는 일단 질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변개처럼 난자를 찾아 달려가게

되어 있어 또 한가지. 콘돔은 한번 밖에 못써.

꼭 한번 읽어...



콘돔 사용법



이렇게 줄을 수가

콘돔은 장점이 참 많아, 외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그 때마다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도 콘돔 기피증 환자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아쉽잖아 수가 없어. 만약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라면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기피증 환자들이 제일 자주 들려대는 핑계는 어떤 게 있을까?

[핑계 top 6]

1. 알레르기

알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무 알레르기가 있어, 양귀에서 라텍스 고무장갑을 사서 5 시간 동안 끼고 있어 본 다음 피부가 붉어지면 고무알레르기야.



2. 남성 우월의식

자기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콘돔을 못쓰겠고 우기는 거야. 대신 여자 친구에게 양아서 하라고 배장을 내미는 거지.

3. 건강염려증

비밀기구를 도대체 얻을 수가 없다고 아파야지. 하지만 콘돔은 여성을 막는 비밀장과는 달라서 부작용이 없어

4. 낭만으로 찾아서

본위기를 할까봐 못 쓰겠다는 거야. '무언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것이 너무 싫어' 걱정 줄 게 쓰는 핑계지. 하지만 콘돔은 비문장 자대처럼 크지 않아. 너무너무 얇아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야. 미리 찾아 머리맡에 둔다면 시간을 쪼개지. 애무를 멈추고 콘돔찾아 삼만리? 둘이 세라면 그것도 재미있을거야. 많이 나오니 많이지. 임신걱정에 덜덜 떨면서 무슨 낭만야? 본위기를 찾아.

5. 머리 너무 글리디가

콘돔을 준비하고 있으면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남자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사들지 않는 거야. 아주 복잡하지.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 둘이서 자고 있는데 둘 다 콘돔이 없는데 나뉘어? 두 사람이 동시에 깨내면서 깔깔대고 웃는 편이 낫겠어?

페미니즘

페미들은 여성의 콘돔이란 뜻이야. 콘돔보다 훨씬 크고 양 끝에 둥근 플라스틱 링이 달린 모양을 하고 있지. 콘돔보다 커서 페미들을 껴줄 때 밖으로 나올 보일 수도 있어. 좀 이상하겠지만 아무런 문제는 없어. 페미들은 여자의 질 내부를 감싸주기 때문에 여자 스스로 임신 약사 성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피임실패율도 약 0.2%로 피임 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지.

이렇게 사용합니까?



1.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누거나 양 무릎을 벌려 앉거나, 의자에 한쪽 발을 올리고 선다.) पैरों들 봉지를 뜯고 꺼내라. पैरों들은 온항체가 빨라진 상태이고, 약한 쪽 끝에 탄력성이 있는 내함이 들어 있다.



2. 그림처럼 내함을 검지로 지지하면서 엄지와 중지로 꼭 쥐면 내함이 좀 아저 삽입이 용이하게 되지.



3. 다른 손으로 질 입구의 점진 부분을 펴고 꼭 쥔 상태의 내함을 팔로써 질 내로 삽입하면 돼.



4. पैरों들 안으로 검지를 넣고 질 내부로 가능한 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구. 내함이 치궁(질 내에 검지를 넣고 몸 안쪽으로 구부리면 치궁을 느낄 수 있음)을 지나서 놓이면 바르게 된 것이다.



5. 삽입 후 콘돔의 외환과 몸체의 일부가 질 외부에 남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6. पैरों들은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는 것이므로 남성이 사정 직후에 성교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제거 시에는 장액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외환을 비틀어 살짝 당겨라.

oral 먹는 contraceptive 피임약 pill

먹는 피임약은 임신을 방지하는 약품이다. 처방을 잘 따르면 가장 확실한 피임법이다. 그래서 가장 이용되는 여성용 피임약이다. 어떻게 임신을 막을까?

먹는 피임약은 인공적으로 생산된 호르몬으로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과 아주 비슷하다. 피임약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은 배란을 막고 자궁구의 접착에 녹는 걸 막아 주지. 그래서 정자가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자궁정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만약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더라도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이렇게 사용합니까?

먹는 피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양 차이에 따라 종류가 달라 지거든. 합제피임약은 두 호르몬의 양이 같아. 이 피임약은 21정인데 포장에 요양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달자마자 먹는다면 자기 전에 먹는다면 시간을 정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지. 21일째 되는 날 한 통을 다 먹고 나면 양조약 동안은 쉬는 거야. 이 기간에 생리가 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새 통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임신은 금물

임신 먹는 피임약을 스캔다고 결심을 했으면 철저히 해야지 태중 태어는 안돼니만 못하. 매일.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에 한 알씩 먹어줘야 하거든. 실수로 한 번 빠뜨렸다면 시간이 지나서도 먹어줘야 하고 한 번 빠뜨렸다고 임신이 될까봐 병병 떨 필요는 없어. 종류에 따라 6-12시간까지 늦어도 관계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부분 설명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어. 그 시간도 초과하여 하루를 완전히 빼먹은 경우 피임효과가 없어 지게 돼. 그럴 경우에도 남은 피임약은 다 먹어야 하고 그리고 14일 동안 콘돔을 쓰도록 하고

실사나 구토를 한 경우에도 피임약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 그럴 때 피임약을 잊어버리고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임신과 진통제, 안정제, 항염증제, 항암제, 소염제 등도 피임약의 효과를 감소시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약을 처방하시거든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고



<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

1. 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해 본다. - 피임약 구입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방법이다.
2. 안전하고 기분 좋은 성관계를 위하여 사전에 피임에 대해서로 논의해 보자.
3. 피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천하지 않는 상대는 그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
4. 여성과 남성은 자기 몸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권을 자유로이 주장해보자...



폭력
관계
은혜
섹스
스가
가아
아니
니야
야

섹스랑 상관없는 걸 물어보라면 셀 수 없이 많지.

자전거 타기, 숙제하기, TV보기 등등..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때 계속 따라다니고

최근거리는 행동이나 강간도 마찬가지로

섹스랑 전혀 상관 없는 것들이야.

함께 잠을 자고 사랑을 나누는 건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면 하는 것이야.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은 폭력이야.

누가 습격을 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

두말 할 것 없이 폭력이라고 생각할거야.

성폭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를 강간할 뻔한 성폭자를 떠올릴 것이고,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정실이삼자를 먼저 생각하겠지.

어떤 남자가 전자기 거품에서 실음소리를 내고 있다면,

누가 뒤에서 추잡스러운 말을 입에 물린다면...

아무 일도 없었나? 정말 그럴까?

그런 행동은 겁을 주고 위협을 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해

고이므로 상대의 의지를 거역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과 말은 폭력이야.

거제엔 지하철도 무섭고

밤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겁이나



내 몸의 주인은 '나'



성폭력이란 범죄행위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을 뜻한다.(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규정안 中)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권리와 결정권입니다. 이것은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며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예를 들어 만원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더듬을 때, 여성 비하적인 음담패설이 거침없이 나오는 술자리 문화를 접할 때 여성들은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쾌감의 밑바탕에는 내 몸과 성에 대한 권리가 다른 누구에 의해 동의 없이 침해되었다는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존중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흉터 없는 상처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아픈 폭력이 있어.

하루에 상처를 입히는 할이나 행동이 바로 그럴 것이지.

*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내 가슴이 크다고 놀릴 때.

* 한월 버스 속에서 어떤 남자가 억누른 몸을 파작 물길 때

* 잡아주는 척하면서 실수종 가장하여 내 가슴을 만질 때
이런 것 말고도 내가 직접 겪은 하루의 상처는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런 순간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거야.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어릴 시절부터
침묵하게 여성으로, 남성으로 뒤섞여 왔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갓 태어나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말 얼룩얼룩 헤다보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아이' '착한 아이' 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할때도 사회화되어 여기까지 자라왔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무심코 내뱉진 말 한마디와 행동들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일상속의 폭력'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흉터 없는 상처'도 말이다.....

■ '이년, 개집애, 가사서 등의 지칭

물론 이러한 표현들이 지역 문화적 특수성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 위와 같은 표현들이 여성에게 사용될 경우, "●●"이라는 표현이 남성들에게 사용될 때와는 달리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되고, 여성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 남성에게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나 비유가 여성에게만 사용되는 경우

'여자가 왜 그리지, 여자가 저수 있게, 이치잡부터 여자가 잔소리 한다, 감히 여자가' 등의 표현

■ 여성 특유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

'이 잘생긴게 생김새', '건축도로, 거대한라이, 건도로, 잘생겼소', '얼굴 값 한사' 등의 표현

■ 남성에게 대한 성차별 언어

'가생 오라비 같다', '남자가 왜 그렇게 출렁거려서',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 내',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등.

■ 술자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맙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신입생을 받는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아,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이런 상황에서 갓 입학한 여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싫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학 문화라고 당연하게 여기게 될 지도 모른다. 또, 이런 일들이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학기 초의 신입생 환영회나 남자고등학교의 동문회에서 '학번'이라는 권력을 빌미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지 않은가. 강요받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쁜건 나쁜 거 아닌가?

성폭력 대처방안 1

-굴목길에서

집으로 가는 늦은 밤
어두운 굴목길에서 다
겨오는 낯선 여자씨
어떻게 마시겠어요?
소리를 지르겠대요?
누가 나와 볼까요? 이
때는 주위에 있는 돌
미나를 집어 불 켜진
창에 던지세요. 쟁쟁
한 소리와 함께 들려
오는 동네사람들의 목소
리에 당신은 이제 안
전입니다. 저지 다니는
길에 대한 정보를 망
상 수집합니다. 늦게
까지 불이 망상 켜져
있는 밤 늦게까지 문
을 연 채 가까이있는
가게 포그마만 켜두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
다.

■ '여자는 예뻐야.....', '사려깊어야.....' 식의 정형화된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요하지 맙시다.

남성에게는 늠름하고 씩씩하며 근육이 있고 당당한, 여성은 얌전하고, 예쁘며, 가냘퍼야 하는... 이러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다. 근육맨, 정력 이야기, 잠자는 솔솔의 공주, 선대텔라..... 이미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런 켜어진 틀에 Anti를 거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 휘파람,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내지 맙시다.

■ 음담패설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성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음담패설일까? 남자만 음담패설을 하는건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특정한 음담패설을 여성 역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언어의 의미는 상황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정한 이야기가 행해지는 어떠한 상황(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것은 폭력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폭력적으로 느껴거나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공공장소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사진을 게시하지 맙시다.

개개인이 그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릇된 성문화를 이끌어내어 타인에게 일정한 혐오감 내지는 수치심을 일게 하고 일견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누드, 포르노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포르노 사이트를

몸으로써 주변인들에게 원치 않은 불쾌감을 주어 적대적인 성적 환경을 조성했다면 역시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까?

■ **여성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아래위로 훑어 보지 맙시다.**

그럼, 그냥 쳐다보는 것이나 혹은 우연히 시선이 갔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평가하고 실제로 절눈절하는 시선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가령 얼굴만 쳐다보고 그 아래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시선의 구분은 "의도적인가/비의도적인가"라는 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시선을 받은 여성들의 '느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촉기를 빙자한 스킨십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여자로서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하게 느끼는 두려움들. 공중화장실이나 복잡한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두려움. 여자라면 한번쯤 느끼고 경험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듯한 이야기이다. 이는 분명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등 이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성폭력이나.' '이런 건 사소한건데.'..... 라고 그러한 경험을 했을 피해자의 느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기들이 심심찮게 하곤 한다. 아주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그러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원치 않은 행동들일 때 충분히 내 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문제제기(Anti)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폭력 대처방안 2

-와장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욕외와장실과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이 전체 강간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 말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캐비닛이나 식당 등에서 욕외와장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혼자 간 사람이 5분이상 경과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눈에 보이는 피해의 정도도 판단되지 않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이 다른 누구에 의해 동의 없이 (unwanted)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나 자신의 한 일기체가 아닌 타일에 욕구에 의해 대상화, 사물화 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성폭력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분과 느낌을 착하고, 그것을 서로서도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더 이상 과잉반응 내지는 피해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서로 이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가슴을 열고 나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세상을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에 건강한 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성폭력 대처방안 3

-엘리베이터에서

수상한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경우, 절대 수상한 사람을 먼저 올라보내서는 안됩니다. 그가 중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이 현명입니다. 혹시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집안 식구를 밖으로 불러내어 동행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물론 여자를 포획하고 헛소리를 했다고

응답례를 늘어놓았다고,

여자 나체 사진을 들고 다닌다고

그때마다 항의할 수는 없을거야.

하지만 나의 항의 자체를

히스테리나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응수하지 말아야 할거야.

또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라도

무당한 일을 참지 못하는 풍기가 필요해.

나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친구의 편이 되어줘.

네 행동이 친구에게 풍기를 물어넣어 줄거야.

일지마.

안내는 기억이 아니야.

침묵은 폭력법을 도와주고,

외면은 희생자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어....

성폭력 대처 방안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합니다.

성폭력 피해 후에는

-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통풍이 되는 종이 봉투에 싸서 보관합니다.
- 강간 피해의 경우에는 목욕을 하지 않은 채로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 채취와 외상 치료, 성병 감염 여부, 임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필요한 증거가 사위 중에 상당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도 젖지 않고 정자가 살아 있는 시간인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 고소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성폭력 피해는 현행법상 1년이 지나면 고소 할 수 없으며 친고죄로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 ① 성폭력 행동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 일시, 주변상황, 특이사항 등 후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이나 고소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 ② 기록할 때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 당시의 자신의 느낌, 감정(예: 앞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는지(예: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다든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기록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① 학내

- 학생생활 연구소 산하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
(학생생활 연구소 02- 2210- 2303/ e-mail: sccouns@uoscc.uos.ac.kr)
- 인문학관 1층 5102호 여학생 상담실(02- 2210- 2291)
- 총여학생회
(02- 2210- 2367, 2859 / <http://www.uos.ac.kr/~womensa>)

② 외부

- 한국 성폭력 상담소 529-4271~2
- 한국 여성 민우회 2399-5753~5
- 한국 여성의 전화 2363-6464
- 한국 여성 단체 연합 2273-9535

③ 도움 받을 수 있는 병원

어떤 산부인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 등을 기피하는 곳도 있으므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 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을 받으러 가서 반드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질병 검사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들의 약속

1. 상대방(여성)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거부 의사(언어, 행동 등)는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
3. 상대방이 자신외 외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4.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평소 에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한다.
6. 음담패설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담패설이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7. 성폭력과 실패에 대해서 자신부터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성행위와 성폭력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약속

1.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와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외사로 면을 분명히 한다.
4.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5. 외부와 차단된 공간(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 자신외 생각과 상대방(남성)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7.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Cyber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스톤[도사와 97]

책상을 하려고 대화방에 들어가면, “섹시녀만 들어와요”, “빠른내 환영” 등등의 노골적인 방패문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성별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상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시작된다. “가슴 빠이즈는?”, “엄격하십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Cyber 공간에서의 이러한 성폭력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성추행만큼이나 빈도수가 잦고,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그러나 성폭력을 성기 삽입의 유무로 판단해 버리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성기 삽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Cyber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그 개념 자체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회피하게 된다. 이렇듯 Cyber성폭력은 Cyber 공간에 대한 전체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Cyber성폭력은 단지 가상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남성중심적인 잘못된 성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 Cyber성폭력의 정의와 유형들

Cyber성폭력이란 Cyber 공간 상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성권력의 발현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Cyber성폭력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대화방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 ▶ 이메일이나 쪽지(memo) 등을 이용해 성에 관한 내용을 발송하는 것
- ▶ 게시판 등에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추신과 관련된 (당신이)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사이버 성폭력의 연장으로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성적·방탕하는 행위를 하는 것
- ▶ Cyber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장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
- ▶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할 때 집단적으로 여성을 무시하는 내용이나 불미스러운 내용을 올리는 등 게시판을 공격하는 경우
- ▶ 이렇듯 Cyber성폭력은 갖가지 형태와 내용들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확실한 제재 없이 활약을 치며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2. Cyber성폭력이 없는 사이버 공간을 위해

Cyber성폭력이 해결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극적으로는 가해자와의 대화를 중단하거나, 아예 그 대화방을 나오거나, 거부 명령어를 쓰는 등으로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피하고 싶지 않다면 싸움 준비를 하자. 대화내용을 저장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가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게시판에 올린 내용 등과 같은 자세한 기록을 증거물로 모아두고, 가해자에게 바로 증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단호한 경고편지를 쓰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해가 지속되면 저장한 증거물을 근거로 해당 통신회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제시).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희망,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성권력의 발현이다.

Q: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Cyber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Cyber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Q: Cyber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관리 (무성적인 ID나 대화명)를 이용합니다.

만약 '섹시어'라는 ID 경우 중성적인 아이디보다 더 쉽게 Cyber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하세요.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적 장소에서 만나요.

■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하고 가능한 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컴퓨터 기술을 습득합니다.

가짜자는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하며,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Q: Cyber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싸움 준비를 하세요.

■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갈무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응책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 소극적인 대응 - 방을 바꿉니다. /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 대화명을 바꿉니다

* 적극적인 대응 - 원치 않는 행동을 말하고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맞서세요.

■ 대화상에서는 공개적으로 경고하세요. 성폭력을 멈추지 않을 경우 신고기관 등에게 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단호한 경고편지를 보냅니다.

■ 피해상황과 관련한 모든 메일, 갈무리한 파일을 시간과 날짜와 함께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 합니다.

■ 갈무리한 파일이나 메일 등은 절대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구!

- 스토킹 어떻게 버릴 것인가.

스토킹은 일반적인 통념상 특정 연예인들이 겪는 문제로 바라보거나 구제의 한 방법으로 여겨 피해사실을 알 것 가난 문제나 하나의 재미있는 토크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는 몇몇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만다. 하지만 이 역시 현 사회의 성적 권력관계의 맥락과 동떨어 있는 문제가 아니며, 스토킹은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실상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으로 웃어 넘기기에겐 체계적인 규칙이 많다. 그럼 지금부터 스토킹을 꼼꼼히 살펴보자.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 반복적, 일방적으로 편지, 선물을 전달하거나 전화, 따라다니기, 집앞에서 기다리기, 찾아가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왜 스토킹의 피해자는 유독 여성인가.

그리고 그 과정은 이토록 성폭력과 유사한가.

스토킹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남녀 비율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98년 1월에서 '99년 1월까지 여성 피해자는 96.8%를 차지하며, 남성 가해자는 9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 이 글은 '00년 여성 연대 만만 자료집에 실린 글을 빌려와서 요약 정리한 글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킹 역시 현 사회의 권력적이고 위계적인 남녀간의 성적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자, 성폭력의 맥락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짐을 말해 준다. 즉,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주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토킹의 어떠한 성격이 현 사회의 남녀간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보자.

여러 스토커의 유형에서 살펴 수 있는 첫 번째 특성은 이들이 상대의 동의 여부를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스토킹을 정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연애'로 불리우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행동은 '남성의 열정'으로 비추게 되고, 로맨틱한 사랑의 한 형태(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스토킹의 성격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여성의 "NO"가 "NO"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하지 않음'에도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성의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통제하고 싶어하며 가해자들은 그들이 불공평함을 느낀 권력의 박탈감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가해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 준다. 즉 권력관계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남성이 성폭력을 가하는 배경에는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한 확인과 강화라는 점이 놓여있는 것처럼, 스토킹에서 가해자가 알고자 하는 권력 추구 역시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아래에 놓여 있는 여성, 즉 남녀간의 권력 관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스토킹의 성격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스토킹 행위가 갖는 '연속성'의 문제이다. 대체로 스토킹은 구애(집근), 위협(상대방이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경우), 폭력(점차 물리적인 폭력, 유괴, 성폭력 등으로 이어짐), 포기(중단될 경우) 4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는 결국, 스토킹이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의 10%가 물리적 형태의 성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은 성폭력과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을 가진 행위이며, 발전해가는 전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에 공포와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실제로 아는 사람들끼리의 스토킹의 경우 더욱 많은 수가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닐,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여성 경험의 연속성'과 연결될 수 있다. 물리적인 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의 가해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여성들은 일상적(이동하면 지하철 내에서, 직장 내에서 등)으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하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폭력의 위험처럼, 스토킹의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과거에 경험한 성폭력의 피해와 스토킹의 피해와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스토킹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애 증세와 악몽, 대인 공포, 외출 공포 등의 피해 후유증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도 "열면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스토킹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스토킹도 성폭력의 한 범주에 속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이 분명 특정한 형태의 폭력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할 거 다!?

獨立?

한밤중에 음악 틀어놓고 춤춰도 뭐라는 사람없다



그런데 아줌마나... 전 그냥 착한 학생이니까요...

나는

毒立?

청소·설거지 안한다고 뭐라는 사람없다



독립 할 거 다!?



117

www.uos.ac.kr/~womensa

STACCATO

이곳에서 일기로 일기에 지이하는 17대 총학생회 (가)



❖ 운동 기구를 대여해 준다구요?

총여에 댜 운동기구?! 여학생들은 대부분 운동하고 땀땀고 지내겠거니 하지만, 이것도 우리 사회 똥똥이 아닐까요? 여학생들은 그저 조숙하게(?) 자라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이 그럴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운동과 친해진다 면 운동하는 게 낫선 일도 아니죠, 그리고 운동하면 건강에도 좋다는데~ 음, 처음부터 어려운 운동이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자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총 여에 **베드민턴** **제와 탁구** **백켓**이 있어요 **사전**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빌리실 수 있습니다.

❖ 비디오방이 설마 총학생회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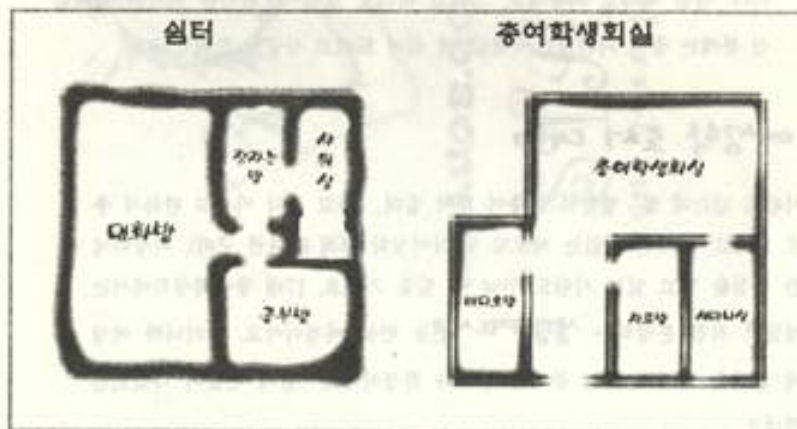
설마 설마가 진짜랍니다. ~ 공장 시간에 딱히 할 것도 없고 심심하시다구 요? 자자!! 총여로 오세요~ **3명 이상**이 오면 비디오방을 이용하실 수 있구 요 총여에 구비되어 있는 **80여편의 비디오** **가운데** **클라** **보실** **수** **있** **답** **니** **다**. 당일 예약도 가능해요 그리고 비디오 보신 후 감상문 쓰시면 채택되 신 분께는 총여 기관지인 <햇살>에 실어 드리고 상품도 드린답니다.

❖ 여성학 도서 대여

도서관도 있는데 뭘~ 뽕뽕하게 총여 가서 빌려... 라고 생각 마시고 편하게 총 여로 오세요 도서관에 없는 자료도 있고(여성학 서적 60여권 구비),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7대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자서도서관**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밤샘작업으로 눈이 뻑뻑해서 잠시 쉬고 싶은데... 어디서 눈 좀 붙일 곳 없을까? 저는 이제 고민을 안해요. 컴퓨터 잠자는 방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

그런데 남학생들의 원성이...!! 그거야 남학생 휴게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여학생 휴게실이 먼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여학생 복지를 위한 총여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여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와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잔디밭에 누워서 낮잠 자는데, 밤 편히 자유로운 여학생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답은 금방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설 공간은 너무나 기본적인 학생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휴게실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남학생들에게도 휴게실이 생기도록 다른 학생회와 함께 총여학생회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회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공개'와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꾸준히 의사소통했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7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자치와 연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자치를 위한 조건과 토대(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학생의 일상에서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관심사가 다른 여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자치와 연대는 그 자체가 과정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물에 집중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 구체적인 모습보기!

□ 성문화를 뒤집어 -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근본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내 성문화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칙 제정이 최선은 아니다. 하지만 학칙은 제도로서 가지는 기능과 학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런데 학칙 제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간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취업 요구할 권 요구한다!

취업전선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향상만으로 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업준비에 관해서는 취업정보실을 이용하여 여학생을 위한 강연이나 자료 등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여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몸에 익히기 위해서 여성 노동에 대한 작은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여학생들의 자치와 연대

- 생활자치 도서관

: 현재 여성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총여학생회로 자료를 찾으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서, 일회적인 만남에 그쳤던 자료 대여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여성학 관련 자료를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총여학생회 자체 예산 자치제

: 아직까지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여학생이 경험하는 일상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자치 활동에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적극성을 조금 더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여학생 복지

우리학교는 전반적인 학생 복지 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그런데다가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복지시설인 휴게실 강화와 생리대 자판기 확충에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공간 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21C관 공간에도 현재 턱없이 부족한 학생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STACCATO

'성문화 자림이'가 대체 뭐지?

-새터 기간동안 **성문화 자림이**들이 속한 파나 단대별 새터 일정에 참가하면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개인이 원치 않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잘못된 점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은 비판할 수 있는 모니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문화 자림이들은 단순히 새터에서 이루어지려한 일들이 있었다 라는 모니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한 결과를 대학공동체에서 알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조금씩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새터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2000년도 **성문화 자림이** 평가서를 참조했습니다.)

● 새내기 장기지랑은 남학생들의 차력 시범과 스타크래프트를 패러디한 극이 많았는데 대부분 남성은 힘이 세고 강하다는 고정관념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역할이 한정되었습니다.

● 미스 00 등 과의 남학생들을 여장시키는 프로그램이 자주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표현이 과장되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 **성문화 자림이**가 모니터 한 결과를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에 변화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때 **성문화 자림이**의 의의도 계속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몇 사람들만이 성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진지한 의견 수렴 자세와 고민의 지속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새터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0000000000

여학생들과 함께..

여성모임 1

Miraculous Utopia Sisterhood Tank

must

- a. (명령, 의무) ... 해야 한다
b. (원인) ... 입에 들림 없다.

must²

- a. 학생회관 3층
여성문화연구동아리
b. 여성이라 행복한 공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공간

본 사전에 대한 문의사항은
2210 - 2851



여성모임 2

해 무 리

해무리는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 통계학과 내의 부서 모임입니다.

우리 부서는 여성 문화 연구회로서, 과외 학교내외 여성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처음에 과외 학교내외 여성문제에만 국한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더 넓게 여성차별, 불평등문제, 소외된 여성, 직영여성, 미혼모 등의 여성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해무리가

여성 문화연구회라 해서 여성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해무리는

성차별적인 문제를 남녀라는 인간이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논의하며 문제의 해결방향을 서로가 생각해 보는 부서입니다.

성명이 부족하다구요? 그럼 한 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의 부서를 느껴보세요..

새 내 거 줄 위 한 작 은 이 야 기 들 1)

낮은 목소리 시리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성노예의 역할을 강요당했던 피해여성들의 증언과 오늘날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베를린 영화제, 몬트리올 영화제, 홍콩 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1993년 마준여성의 삶을 취재하던 변영주 감독은 한 여성이 중군 위안부였던 어머니의 자궁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준을 시작했음을 알고, 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아가 1년을 함께 생활한 후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 각 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낮은 목소리 <아빠서 여성으로 사는 것> -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기 전 이들의 고통을 증언한 이 영화는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 1호로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원이 되었다.

낮은 목소리 <소중한 삶> - 낮은 목소리 2는 할머니들 스스로가 노후하고 서로를 어 끌어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한다. 슬픔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역사적 과우침의

단초로 내놓은 할머니들. 할머니들의 당당한 변신 앞에서 <낮은 목소리 2>가 '습과적인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이들의 어려운 드라마에 대한 결단이 다시 당각될까봐서이다. 가시지 않은 일상의 슬픔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들은 '군위안부 피해자'란 집단적 정체성을 넘어서 각각의 숨결을 지닌 구체적 인물들로 나타난다.

낮은 목소리 <숨결> - 할머니들과 변영주 감독의 여러사람들이 함께 한 7년 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낮은 목소리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1,2편이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의 일상을 쫓아가며 상처와 치유에 관한 목소리를 끌어낸 것이라면 3편은 거꾸로 이들의 증언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정신적 충격으로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신달진 할머니의 비극이 담겨있다. 김운심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에서 얻은 상병 때문에 딸이 청각 장애자가 되어 여반도주했다. 영문도 모른채 아내와 딸을 잃은 남편에 대한 연민, 평생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딸에 대한 죄스러움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그 애길 어떻게 털어놓고 있는데 옆에 앉은 딸, 빙그레 웃으며 전부 털어 일기를 보고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낮은 목소리 시리즈는 끝이 났다.

수 요 집 회

1992년부터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수요일마다 펼쳐지는 집회이다.

대부분 하얗게 선 머리를 하시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정식으로 사죄하라' '국제법에 따라 정식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맨 앞 줄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

일본 정부는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군국주의를 온건히 잔미하기도 하고, 아시아 피해국들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파헤치는 망언을 일삼는 행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를 통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없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 행위의 본질을 은폐하

그러나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고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일시위는 지난 1992년 1월 8일 피아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진행되다가 정기시위로 자리잡게 된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단체들에 의해서만 주관되던 수요일시위는 여러 단체로 확산되어갔고, 일본 대사관에서 종로2가 탑골 공원으로 이어지는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수요일시위는 400여 차례 이상의 시위를 반복해오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매주 시위를 해내는 주최측과 할머니들의 의지와 용기가 대단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집회가 계속 지속되도록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여러... 등의 무심한 심목에 답답함이 있다.

호 주 제

'호주제'는 가(家)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호적법상의 제도이다. 호주는 출생, 혼인, 입적, 사망 등의 가족 내 신분관계의 변화를 신고

할 의무를 지니며, 호적상의 가족들은 호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된다. 호주제 하에서 호주 결정 순서는 남성이 우선된다.

1) 고려대학교 석은 17집

호주의 승계 순위는 직계 비속 남자들(아들과 손자)-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다)-처-어머니-며느리의 순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 남편가(가)의 호주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1998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호주제가 없어질 경우 자신의 부리가 흔들린다'거나 '미풍양속인 호주제를 없애는

것은 조상의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호주제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일 뿐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는 기본가족별 편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호적은 친족단위로 편제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쓰일 뿐이다.

부모성 함게 쓰기

'부모성 함게쓰기'가 궁극으로 주장하는 것은 '엄마는 억울하다. 엄마 성도 붙여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내 어머니의 성도 외할아버지의 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아버지들의 성이 영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성 함게쓰기는 잠재적으로 '성(姓)'이라는 것은 2세대간에 국한되는 번반의 공통코드로 쓰여지는 것이며 3세대 이상 올라가서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많은 이들이 '부모성 함게쓰기'를 하면 나중에는 성이 길이가 무한정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한다. 하지만 김박최한장제 같서, 하는 식으로 무한정 성을 갖다붙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여를 들면, 김**+박** = 김박**.

박김**, 김박** + 최한** = 김최**, 김한**, 박최**, 박한**, 최김**, 한김**, 최박**, 한박** 식으로 아버지쪽 성에서 한자와 어머니쪽 성에서 한자를 따서 그 순서도 아버지성을 먼저하든지 어머니성을 먼저하든지 결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친사촌간에도 성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결국 그 가문을 나타내는 '성'이란 코드는 무력화되며 즉, 성은 2세대의 가족(즉 부모-자식)만이 유대를 확인하는 코드가 될 뿐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는 남성중심주의의 위력을 희석시키고 이름의 역사에서 은폐된 어머니를 살려내는 것이 부모성 함게쓰기 운동의 목적이다. ○○○○○○○○

우리 속에 들어있는 편견들 II



.....?.....*.....?.....

..... 신나는 낱말맞추기

♫ 이 책을 끝까지 읽으신 분은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거예요.
모르겠다 싶으면 당장 차례라도 뒤져서... 꼭 완성해 보시길...
이 책 맨 뒷장에 낱말맞추기와 OX퀴즈 응모권이 있으니,
다 루시고 17대 총여학생회로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어요.
새내기 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학생만 되는 걸로 고민하시는 남자분들은 없으시겠죠?...

[가로표이]

- A 인문학과 함께 있고 매초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곳 언어 문제 성 문제 등 상급을 받고 싶을 때는 이곳으로 가세요.
- B 임팩트 발음하고 있는 수정판 그 저자에게 가지고 있는 상해 수정판 난자의 지공예의 작상에서 시작 분야로 그친다
- C 법정대법 양정학과와 인문과학을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시간이 모르면서 이 모임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듯 하네요 여성 남성 인원이 진정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임이죠
- D 그동안 사절에는 수이 노기 수 없는 '처음 만나는 자요기' 뽀얀 연기 만 모습에 제해해시스를 노기요... 그러나 건양에 중지 않으니 조금씩만 ^^
- E 이곳은 '잡어'는, '임계'는, '생물' 속의 '여성'을 살피는 곳으로 1987년 9월 남녀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http://www.womenlink.or.kr/>
- F 인간의 성적 양성의 묘사를 조로한 도색적인 영와 외와 사진 소성을 통해어 일하는 말
- G '새해'는 ○○○○ 새로 배움하의 준비이러고 인다지요? 언니는 가려----
- H 학생회관 2층 총여학생회 앞에 있는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기도 나고 공부도 하고 쉬어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 I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학생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여성주의 안마당으로 1997년도에 처음 열리고 지금까지 4회까지 열려다니다
- J 이상에서 일상으로 일상에 전이하는 ○○○○ 17대 총여학생회!??
- K 총여학생회기 3월 경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총여학생회의 출범을 알리는 것으로 학생들과 만해 다짐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많이 놀려주세요---
- L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상해의 역사를 강요당했던 피해여성들의 증언과 오늘날의 삶을 담은 다짐에 따라 여성 강단이 변형중 중독의 작품이요
- M 사람대 나에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다짐을 위해 마련된 위안부

- N 동생애자나 마의 종족자애적만 한정된 정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급제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 O 깊은 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사랑으로 장외되고 인물 역사와 시적과 함께 존재해 온 하나의 상징적이미지요... 공식적에서의 커밍아웃(coming out) 통해 이소화가 되었지요

[세로표이]

- ① 여성주의의 이론적 체계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 여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연구가 목적이요
- ②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자궁 내에서 임신은 준비하던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에 보이는 것이요... 한달에 한번 ^^
- ③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언어적 성희롱 일명 EDPS
- ④ 섹스 할 때 아이를 얻어지 않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여/남 상관 없이 모두 신경써야겠죠
- ⑤ 오히려 더 이상 완성이 아니다 왕자님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듯와 본래 뜻은 부엌대기
- ⑥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많잖아 있는 곳 늘 그곳 사람들이 복직 복직. 비좁아----- 법정대 경상대가 주로 쓰는 건물이요
- ⑦ 여성주의 시각에서 ○과 ○○의 결합방식과 성격을 이야기고 더 나은 ○과 ○○의 방안을 고민하는 강좌입니다 'sexuality and love'
- ⑧ 제의 총여학생회에서는 운동기구를 대여를 만듭니다 ○○○○과 탁구채 심지어 줄넘기까지...
- ⑨ 최고 1500원이며 밥 안 그릇이 딱딱! 학생회관에 놓여 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좌-- 악
- ⑩ 컴퓨터 통계학과 여성 문제 연구부서지요...
- ⑪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 문화를 만나는 행사로 이 책을 처음 받은 행사이기도 하죠^^
- ⑫ 여성의 월경이 지닌 '계'의 그릇된 관념을 개기 위한 영매마니스트들의 여성주의적 문외야스비법
- ⑬ 국내 여성문제연구동아리로 이름이 뜻은 'Miraculous Utopia Sisterhood Tank...' (잠 아릅니까?^^)
- ⑭ 학교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총여학생회에 모여 ○○○○방이 있요
- ⑮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그리고 각 단체 학생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로 매주 1번씩 열려 학생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자치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학내자치대표기구입니다
- ⑯ 먼저 있는 상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위압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원형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원형을 저 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파벌을 유발하는 성폭력의 아니요

우리 묶은 어떤 의미를 갖을까?

태어날 때 부터 우리의 성기는 '보여주지말아야할 것이고

언제나 조심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 받는다.

우리의 첫 월경은 더러운 피로만 이어졌을 뿐이다.

우리의 묶은 언제나 위협을 받는다.

대낮에도, 차안에서도, 집에서도, 거리 곳곳에서...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우리가 조심하게 묶을 잘 간수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임신은 너의 묶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는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나의 육체에 대한 너의 요구는

이미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결정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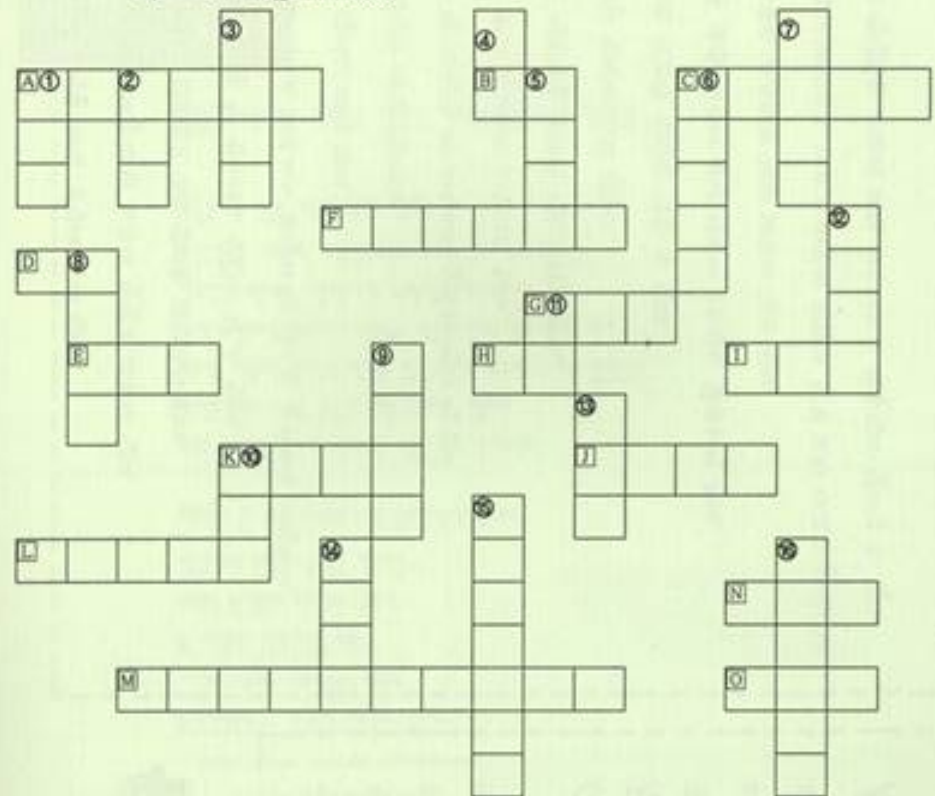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나는 아주 조그마한 행동들을 시작하려한다.

내 육체는 내 스스로 결/정/함/다.

END

[Q1] 오랫동안의 나의 실력을 테스트 해 볼 기회!!
근데 그리 만만치는 않은데?.....n.n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루셔서 총여학생회 스타카토를
찾아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려드립니다...
우~아.. 상품까지 ㄹㅇ



From.....

누구?: (송·우)

무슨과?:

몇 학번?:

연락은?:

To.....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
즐거운 웃음이 넘쳐나는 곳
학생회관 2층

이상에서 일상으로 일상에 전이하는
스타카토
17대 총여학생회

도움없이 마음 이끄는 한가게 행차요...

심학각 글 써서와 고생한(고생대 재미있어 하잖아) 설, 소문
심학각인 문에서 땀방아하게 땀방아침을 했던 학행 이디
옛날나 용여에 올때마다 마이는 겨울 잊지 않고 왔던 아한
지름길 죽음에 갈까지 참마를 청성스럽게 퇴가까지 했던 학지서
영상을 찍어서 내 품길게 했던 마리와 상운씨
그리고 스승님을 용여에 베풀어서 명예시게 감사도하요

따라서 서울시립대 및 기타 참여학생회(각)에서

$$\begin{array}{cccc} \text{CH}_3\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3 & \text{CH}_3\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3 & \text{CH}_3\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3 & \text{CH}_3\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2\text{CH}_3 \\ \text{2-Heptanone} & \text{3-Heptanone} & \text{4-Heptanone} & \text{2-Nonanone} \end{array}$$

그럼서 는 있어 하나는 2에서

▶ 이쪽을 생각하면 되요

02, 2210, 2367 or 2859

불이 나니 불을 끄고, 작정해서 명이라도 붙여요. ^^

<http://www.uos.ac.kr/~womensa>

☞ k-like © hamail.net

๙๙๙ | lunar0 @ freechai.com

한디 perduck @ hanmail.net

남은 남

2001. 02. 26 금요일

이상에서 이상으로 이상에 이르는 소파파로
17대 문예작가협회 (가)



www.uos.ac.kr/~uomensa

1. 월경 중에 사탕이나 수업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2. 여성이 처음 성관계를 가질 때는 누구나 출혈과 고통이 있다.
3. 문둥병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4. 성관계 시 질의 사정을 한 경우에도 임신이 될 수 있다.
5. 처녀막은 일종의 막으로 이루어져 무언가 질 안으로 들어가면 파열된다.
6. 피임은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7. 낙태는 가장 확실한 피임방법이다.
8. 낙태의 성기가 뚫기되었을 때 사정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9. 사후 피임약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10. 월경 기간 중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되지 않는다.
11. 첫 관계 시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
12. 성관계 후 바로 씻으면 임신할 막을 수 있다.
13. 먹는 피임약을 보통 월경이 끝난 날부터 2주정도 복용하면 된다.
14. 성관계 시 문둥을 사용하면 성적 쾌감이 감소 된다.
15.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과 성격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16. 부부사이이라면 성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이므로 성욕력이 없어도 수 없다.

fighting

이때 중대형생원 사터 자포집 A.N.T.I.를
관심해보신 분이라면 이 문제도 거뜬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아리송송하
고...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

Q2. 양의 1번부터 16번 문제를 O.X 치시면서 문제 X개수에서 O의 개수를 빼줍니다. ^^

A2. $x - 0 =$ _____